

# 다양성의 부족은 건축을 제한시킨다

Lack of Diversity Limits Architecture



Denise Scott Brown

데니스 스캇 브라운을 그녀의 파트너인 로버트 벤츄리와 함께 프리츠커 상 수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데니스 스캇 브라운의 남편이자 파트너인 로버트 벤츄리가 1991년도 단독 수상한 프리츠커 수상자 명단에 데니스 스캇 브라운의 이름을 올려 달라는 최근 하버드대학교 GSD 학생들의 청원에 대해 말이 많이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당연히 올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로버트 벤츄리와 함께 벤츄리 스캇 브라운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이자 파트너로서 당연한 자격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의 2012년 프리츠커 시상에서도 반복되었다. 수상자인 중국의 왕슈는 부인과 사무소를 공동 대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녀는 공동 수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무시를 넘어서 이러한 누락은 프리츠커 수상자 명단이 가진 다양성 부족의 진정한 상기인 것이다. 1979년도에 시작된 이 시상이 이루어진 이래, 단 두 명의 여성 건축사만이 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자하 하디드와 카즈요 세지마. 백인 남성 지배적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프리츠커가 아닌 건축계 자체에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진보적으로 변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건축계만큼 다양성이 적은 전문직은 찾기 힘들다. 미국 내 소수계 출신 건축사는 1에서 2퍼센트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 많은 여성 건축사들이 있음에도, 전체 인원수로 보면 아직 슬플 정도로 적다. 미국건축사 협회는 전체 자격등록이 되어 있는 건축사 중 여성의 비율은 겨우 15 퍼센트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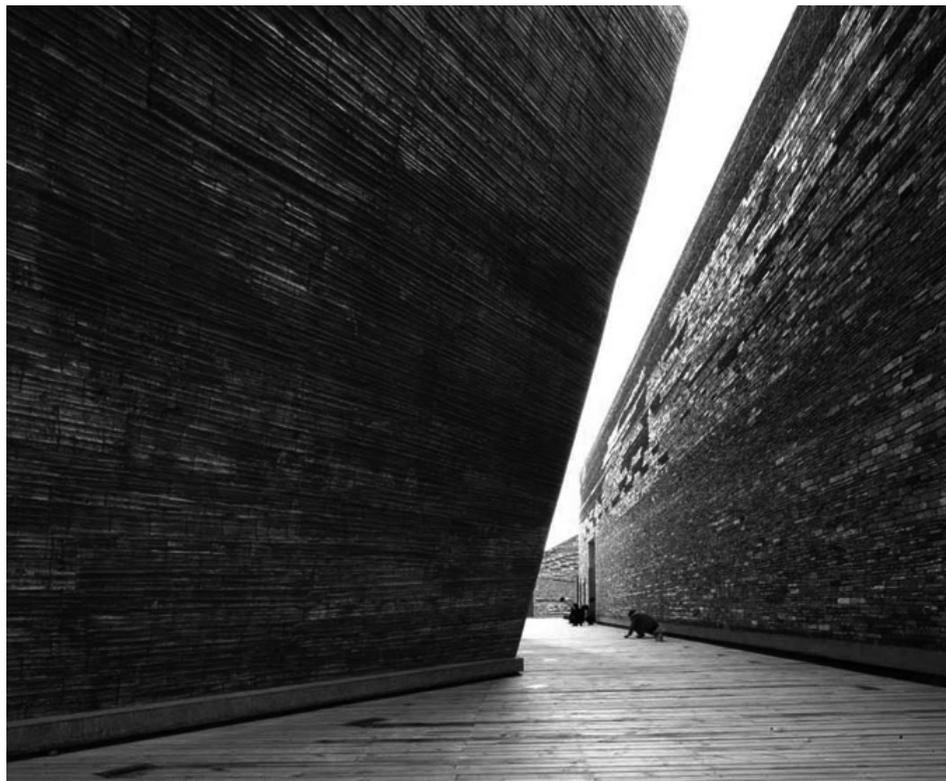
이런 터무니없는 불균형의 원인은 명백하다. 고도의 숙련을 요하나 받게 되는 적은 대가는 풍요로운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

다: 말도 안 되게 요구되는 노동 시간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는 사람들을 건축계로부터 떠나게 했으며, 비싼 등록금과 적은 장학금, 그리고 극소수의 신규채용 상황은 학교들의 평판을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건축사등록 절차는 이러한 자원 확보가 안 되는 상황과 상관없이 전근대적이다. 물론 몇몇 소수 그룹은 단지 계속되어온 문제라고만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건축계의 개선책 마련 노력이 있었다. 미국건축사협회는, 예를 들면 다양성 실행계획과 문제 평가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최근 발족시켰다. 이 자문위원회는 대학교들에게 전문대학 학점을 좀 더 많이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장학금 협력방안, 회사들의 인사팀에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협력요청, 탄력적 근무시간,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육아 또는 양육휴직, 그리고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건축사들의 성취를 시상 프로그램들을 통해 기념하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가끔은 초기의 통계가 전망을 밝게 보여 주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장학금이 늘어났으며, 여성건축사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더욱 많은 여성들과 소수계가 이 건축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계가 더 많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더 나은 계획으로 이 집단들을 지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실 남녀, 소수계, 구분 없이 겪고 있는 일과 생활 사이의 불균형을 더욱 정확히 해소해 주는 일이 확실한 답일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협회와 건축사사무소 스스로는 건축사가 일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 무엇보다도, 건축계 문화가 변해야 한다. 단지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옳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전문 집단이 되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필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 종종 건축계는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으로부터 고고히 떨어져 있다. 하지만 건축계는 그 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더욱 큰 시선의 다양성과 관점,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져야 한다.



Ningbo History Museum (2008). Lv Hengzhong / Atelier

확실히, 프리츠커 심사위원은 더욱 많은 여성과 소수계를 그들의 고민 속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그와 동시에 건축계 또한 그들의 성장을 위한 인재 육성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훨씬 훌륭한 인재 자원을 뽑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건축사협회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이와 유사한 이슈인 “Missing 32%” 심포지엄을 오는 6월 8일에 개최 할 예정이다. 제목에 명기된 수치는 건축학과 등록 정원의 거의 반이 여학생이나(대한민국 상황도 비슷함) 18% 미만만이 등록 건축사로 성장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 심포지엄은 샌프란시스코의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에서 열린다.

‘여성’이라 귀표 되어 있는 너무 많은 이벤트는 겨우 남성의 버린 빈자리를 여성이 대신 채우는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다양성의 공존도 아니고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도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많은 일들이 유럽과 미국 바깥에서 향해 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디자인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 자체를 드러내야 할 시점이다. ■

윗글은 Architect's Newspaper에서 일부 발췌 인용 했습니다.